

독일어권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모습

성상환*

0. 들어가는 말

독일에서 한국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다. 19세기 후반 양국간의 외교적 접촉이 시작됨과 동시에 독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오랜 동안 서구에 대한 쇄국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비교적 늦게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19세기말에서 1900년대로 넘어 오면서 독일 베네딕트 수도회 신부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종고 1983: 363). 이들은 진지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연구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 신부로서 그는 나중에 독일에 귀국한 뒤 뮌헨 대학에 한국학과를 설치하고 독일 한국학의 시초를 세웠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학과는 없어졌고 2004/2005년 겨울학기 현재 이곳에는 중국학과 내에 4개의 한국어강의가

* 前 독일 Bonn대 / 現 한국교원대

개설되어 있지만 정식 학과의 개념은 아니다.

독일대학에 정식으로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곳은 2005년 9월 현재 다섯 군데이다. 이 대학들을 열거하자면 베를린 자유대(Freie Universität Berlin), 보훔대(Bochum), 본대(Bonn), 함부르크대(Hamburg), 튀빙엔대(Tübingen) 등이다. 그 외에도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의 한국학과는 2000년 초에 한국 학과가 폐지되었고 튀빙엔의 경우는 주전공이 최근에 취소되었다. 그 외 대학에 한국어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곳으로는 마인츠(Mainz)대, 프랑크푸르트대, 하이델베르크대, 트리어(Trier)대,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 한국학과가 박사과정까지 2004/5년 새로이 설치되어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학과들은 각기 연구중심 분야가 독특하고 교원들의 구성에 따라 학과가 추구하는 방향도 서로 다르다. 다만 한국학 전공분야의 고급단계로 접어들기 전 첫 2년 정도는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첫 2년 동안 한국어 회화와 문법 교육이 나란히 병행되며 빠르면 2학기부터 한자교육이 시작된다. 2년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개 중간 종합시험인 Zwischenprüfung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대개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 6개월이나 1년을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다. 요즘에는 장학금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끼리 장학생들을 교환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 어학연수나 ASEM DUO 장학제도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 독일 학술교류처인 DAAD도 석사과정 이상 학생들이 한국으로 갈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 대학들은 요즘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독일대학의 한국학과들도 미국식의 BA나 MA과정을 새로이 개설하고 있다. 대개 한국어 교육 2년 단계가 끝나고 한국을 다녀오면 학생들은 순전히 한국어로 수업하는 문화나 역사 강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첫 2년간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독

일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수업하는 식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독일 Bonn대학 한국어학 교과과정 (2학기) (부전공, 보충과정제외)
(기존의 독-한 번역학 석사 과정의 경우)

기초하급과정 (Grundstudium)	
0311.	기초한국어 II (문법과 연습)
0312.	기초한국어 II (소그룹별 회화연습)
0313.	기초한국어 II (한자 II)
0315.	중급과정 한자 IV
0316.	중급과정 표준어 번역: 한국어 → 독일어 A
0317.	표준어 번역: 한국어 → 독일어 B
0318.	중급과정 표준어 번역: 독일어 → 한국어
0319.	문법: 문장 분석
0320.	중급과정: 소그룹별 회화연습
0322.	문화학적 외국학: 지역정보
0323.	한국어어휘연구
주상급과정 (Hauptstudium)	
0326.	표준어 번역: 한국어 → 독일어
0327.	전문어 번역: 한국어 → 독일어
0329.	상급세미나: 문화학적 외국학
0330.	지역정보 강의: 한국어
0331.	고급한국어작문
0332.	표준어번역: 독일어 → 한국어
0333.	전문어번역: 독일어 → 한국어
0334.	소그룹중심 구두 연습
0336.	번역분석
0337.	석사학위후보 콜로퀴움: 한국어 → 독일어
0338.	석사학위후보 콜로퀴움: 독일어 → 한국어

본(Bonn)대학의 경우 한국어를 주전공으로 택할 경우에도 부전공으로 유럽언어나 아시아언어를 제2언어를 택해야 하고 또 보충과목이라고 해서 정치학, 법학, 경제학, 언론학 등 여타 인문사회과학에서 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택하게 되어 있다.

이중언어를 구사한다거나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현 시점에서 다

중 미디어(multi-media)가 급속도로 발달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학습자에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문화적, 교육적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학습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맥 하에 필자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경험하는 전이(transfer)와 간섭(interference) 현상에 주안점을 두고서 언어습득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어는 독일어와 문법 구조, 음성 체계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배우기에 대단히 어려운 언어이다.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어순의 차이, 한국어의 주어/목적어 등 문장성분 생략 현상, 복잡한 조사와 어미의 사용, 겸양법, 경어법, 수사사용법, 한자 등 독일인들이 한국어 학습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독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문법교재에 나타난 항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장에서 필자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특질을 간략히 비교한다. 2장에서는 한독 병렬텍스트를 통한 언어적 차이점들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독일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문법 오류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주어 표시 생략의 문제와 어순에 의한 정보처리 문제, 그리고 유형론적인 차이에 따른 격조사, 후치사의 습득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교재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1. 독일어와 비교한 한국어의 특질

독일어는 계통상 영어, 네덜란드어 등과 함께 서게르만어에 속하며 이

전의 담화 중심적이었던 게르만의 특질들을 많이 잃게 되면서 소위 주어 중심적인 현대 유럽언어로 분류가 된다. 다만 독일어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와 같은 형식적인 격표지(case-marking)가 발달하여 게르만어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법적인 특징을 가진 가장 보수적인 언어로 알려져 있고 어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명사구에서의 격변화나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격변화, 형용사의 격변화, 성이나 수, 인칭체계 등이 분화되어 있는 언어이다. 근본적으로 인구어는 문법적 인칭(grammatical person)이 발달한 언어이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계(speech level, Sprechstufe)가 고도로 발달한 언어라는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는 또한 많은 다른 격체계를 가진 언어들과는 달리 복잡한 형태상의 격표시를 유지하면서도 주제 중심적(topic-prominent) 혹은 담화 중심적(discourse-prominent) 언어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에는 주어를 표시하는 형식적, 형태론적인 기제가 발달되어 있으나 주어가 문맥상 이해가 되는 경우 대부분 생략이 되며 또한 주어가 사건상황(Sachverhalt)에서 재생이 가능할 경우 여러 문장에 걸쳐 생략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또 주어의 사용이나 생략이 일관적인 법칙에 따른 것도 아니다. 생략현상은 주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나 부사어에도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문법적인 혹은 통사적인 주어표지가 의무적인 인구어들과 비교하여 이러한 한국어의 특질들은 독일어화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목적어나 부사어와 달리 특히 주어가 빠져 있는 한국어문장들을 접하는 독일인들은 우선 문법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없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유럽의 로망스어 계열에 속하는 언어들도 동사내에 주어에 관한 정보가 형태론상 충분히 표시됨으로 상황에 따라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붙어와 같은 언어는 로망스어 중에서도 표기상에는 주어의 정보가 표시되지만 발음상으로는 묵음에 의해 청자의 입장에서 인칭의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2. 병렬번역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와 독일어의 차이

주어중심 언어인 독일어의 경우 한국어와 비교한 다음의 예들에서 주어의 생략 혹은 의무적 표시에 관한 사실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발췌한 한국어, 독일어 병렬텍스트를 살펴보자. 독일어 부분은 본대학의 마티아스 폭스(Matthias Fox)학생이 학기 중 부분번역한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 (1)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네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Kaum hatte er das Mädchen am Bach gesehen, wußte er, dass es sich um das Enkelkind aus dem Hause Yun Cho Shi handelte.

Es war hier beim ihrem Großvater zu Besuch.

- (2)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 듯이.

Das Mädchen hatte die Hände in Wasser getaucht, als hätte es in Seoul noch nie einen solchen Fluß gesehen.

- (3)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Bereits seit einigen Tagen spielte das Mädchen, immer wenn es von der

Schule nach Hause kam, am Wasser.

- (4) 그런데 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Sonst hatte es immer am Bachufer gegessen, aber heute saß es mitten auf den Gehsteinen, die als provisorische Brücke dienten.

위의 한국어-독일어 병렬텍스트에서도 보듯이 한국어텍스트에 주어가 표시가 된 경우(예문 1, 2 참조)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주어가 나타나지만, 한국어텍스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도(예문 1, 2, 3, 4 참조)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주어표시가 반드시 되고 있다. 특히 예문 4의 경우 ‘소녀’ 라는 주어는 한국어문장에서는 2번 생략되어 있으나 독일어 번역문의 경우 주어로서 소녀를 나타내는 대명사 es가 두 번씩 나타나고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 도입부에 나타나는 이 단락에서 소녀가 주어로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여러 문장에 걸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 (5)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Dieses Mal (heute) saß das Mädchen auf den Brückensteinen und wusch sich das Gesicht mit dem Wasser des Baches.

- (6)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Die Arme unter den aufgekrempten Ärmeln seines Pullovers und sein Hals schimmerten ganz weiß.

- (7)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본다.

Nachdem es eine Weile sein Gesicht gewaschen hatte, hielt es plötzlich inne und starrte angestrengt ins Wasser.

위의 예문 5에서 소녀라는 주어가 표시되고 문맥상 이해가 될 경우 한국어텍스트에서는 다음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도 보통 주어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읽기에 더욱 자연스럽다. 예문 (6)은 분명히 문장의 주제가 '소녀'이고 소녀의 옷과 신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예문 (7)에 이르면 독일어 번역문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에서 모두 소녀를 가리키는 주어 es가 등장하고 있으나 한국어텍스트 원본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두 언어간의 언어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학생들의 작문에 어떤 모국어의 구조가 묻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작문 분석을 해 보았다.

3. 독일학생들의 작문 분석에 나타난 한국어 문법 오류의 문제

3.1 주어표시/생략의 문제

독일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1년차 학생들은 약 한 학기 정도가 지나면서 간단한 한국어 작문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주어를 반드시 문장에 표시를 하는 경향을 보이며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들은 앞의 문장에서 동일한 주어가 이미 나온 경우들이다.

Table 1. 주어 표시의 분포사항

(참가자수)	한국어 구사수준		
	1(3)	2 (3)	3 (2)
총 표시된 주어수 / sentences	16/20	18/36	19/44

2년차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어의 특질 가운데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에 관한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어를 생략하는 현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은 문맥상 비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8) 부모님이 계시고 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삼십 오 년 전에 결혼하셨습니다.

실험대상이 된 독일 여학생의 경우 사회학을 전공하고 한국어를 배운 지 3학기가 지난 학생이다. 위 문장 (8)번에서 '나는'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온다면 문장이 훨씬 매끄러울 텐데 그냥 생략을 한 경우이다. 이 작문의 주제가 가족이었는데 이 학생은 그것을 미리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제로 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삼십오 년 전에 결혼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도 선행문장에 문장의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 3가지의 후보명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험대상이 된 독일학생이 주어생략 현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어 구사 수준 3단계는 교포 2세대로서 이미 일 년 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한 경우였고 작문 테스트에서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즉 한국어 초급과정의 독일어화자들의 경우 이들이 가진 모국어의 사전지식에 의해 한국어 습득과정에 체계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는바 주어중심의 언어의 특징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발화에 묻어 나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위에서 언급한 주어가 과도하게 매번 등장하는 현상들과 특히 이러한 주어의 사용에서 한국어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대명사나 대명사유사어구들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인 주제화구조등의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독일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한국어 교육경험에 비추어 보면 독일학생들의 경우 한국어의 화용론적, 담화적인 특질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을 체득해야 하는데 문법중심의 다른 유럽언어들을 습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서 어학연수 등 상당 기간을 보낸 학습자들도 주어를 생략하기 시작하면 주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생략하는 오류의 일반화(overgeneralization of subject deletion)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인구어처럼 대명사나 재귀대명사와 같은 고도의 주어중심언어에서 발달한 문법적 범주들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생략뿐 아니라 주제라는 범주가 있어 동사와 직접 논항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문장에서 장소나 시간, 배경들을 제시하며 담화에서 인지적 이해수준을 지속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2. 어순의 차이에 따른 정보처리 문제

독일어화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경험하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의 하나는 어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절 단위의 구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어나 독일어가 우측분기언어(right-branching language)이며 한국어가 좌측으로 분기하는 언어(left-branching language)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구분이 영어와 독일어와는 반대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영상적 구조(mirror image)로 인해 SVO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들은 한국어 습득 시 문장이 특히 복문으로 겹쳐 나타날 때 여러 인지과정(듣기, 말하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영어 문장을 관찰해 보자.

(9)

- a. The school teacher gave the girl a book that he bought in Europe last year.
- b. ?The school teacher gave a book that he bought in Europe last year to the girl.
- c. Der Lehrer gab dem Mädchen ein Buch, das er letztes Jahr in Europa gekauft hatte.
- d. ??Der Lehrer gab ein Buch, das er letztes Jahr in Europa gekauft hatte, dem Mädchen.

독일어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위의 영어예문 (9a)의 경우 통사적으로 비교적 긴 문장인 관계절이 문장의 직접목적어인 선행사 바로 뒤에 이어지면서 직접목적어를 수식해 주고 있다. 반면에 (9b)의 문장의 경우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으나 직접목적어인 선행사 a book을 수식하는, 통사적으로 무거운 정보에 해당하는 관계절이 전치사구 to the girl 앞에 놓임으로 인해 정보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center imbedding). 결국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위의 문장들을 해독하는 사람은 (9a)의 경우에는 동사 gave에서부터 4가지 문장성분만 파악하면 되지만 (9b)의 경우에는 8가지의 문장성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의 분석과정 (parsing process) 때문에 (9a)의 구조가 영어 모국어화자들에게는 정보처리에 훨씬 용이하게 다가온다. 결국 통사적으로 무거운 문장구성성분이 나 단위들이 영어를 포함하는 게르만어들에서는 문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구조들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면 언어 구조상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상적 구조 때문에 독일학생들은 한국어의 복문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3.3. 유형론적인 차이에 따른 격조사, 후치사의 습득

언어 유형론상으로도 보아 한국어가 교착어(agglutinating language)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어화자들은 문법과 관련하여 한국어 후치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독일어화자들은 형태론적인 격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후치사란 개념이 독일어 문법에는 생소하다. 다음은 Bonn대학에서 실시한 2학기 차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독일학생과 일본학생의 작문을 분석한 것이다. 이 작문실험은 모든 참석자들이 6가지 그림 중 최소한 3개씩 마음대로 골라 그림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이다. 먼저 독일 여학생의 작문을 살펴보자(보다 자세한 내용은 Kim 2001 참조).

- (10a). 제 이름을 철수와 영수입니다.
 집에서 철수_ 장난감을 놀습니다. 철수_ 책을 읽습니다. 오후 3시_
 둘 친구는 시내_ 갑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일본 여학생의 작문을 보자.

- (10b). 철수는 세시 이십분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어요. 우리는 오후 다섯 시 십 오십분에 광장에서 마니*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곱시 사십분에는 아버지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_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것들이 있은* 날이었습니다. (*표시는 후치사에 관한 오류가 아님)

위의 10a, 10b 작문에서 독일여학생의 경우 한국어의 후치사(postposition)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을 거의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학생이 작성한 10b작문에서 독일학생의 작문과 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일본어의

문법이 한국어와 가깝기 때문에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독일어권 학생들과 비교하여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사전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미 한국어 학습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실험에 응한 학생들에게 작문을 하기 전 핵심이 되는 명사적인 표현들이나 서술어의 기본형을 미리 제시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보다 명확해진 것은 독일학생의 경우 유럽언어들과 달리 한국어 문법을 배우면서 비교 할 수 있는 비교 문법적 잣대가 되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4.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 교재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서들을 살펴보면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독일어로 된 교재와 영어로 된 교재, 또 한국의 여러 대학교들에서 출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도 눈에 뜨인다. 이 글에서는 독일어로 된 한국어 문법 교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독일의 한국학 연구기관들은 대개 처음 2년 동안 학생들에게 주로 한국어수업, 한자수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참고로 독일 Bonn대학의 경우 Francis Park이 저술한 Speaking Korean(서울: Hollym출판사)을 첫 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반의 경우 4.2에서 언급하는 Lewin/Kim의 한국어 문법 교재도 사용한다.

4.1. Lehrbuch der modernen koreanischen Sprache

우선 2000년 초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한국학과 부교수로 정년퇴임을

한 Wilfried Herrmann 박사가 북한의 언어학자 정지도 박사의 협조 하에 1980년대에 완성, 통독 후인 1994년에 독일 Buske 출판사에서 발간한 Lehrbuch der modernen koreanischen Sprache를 살펴보자. 총 30과로 구성되어 된 주로 북한말을 기초로 한 700페이지 이상의 비교적 상세한 한국어 문법서로서 북한말에 기초를 둔 몇 가지 텍스트와 표기법, 상이한 어휘들, 발음상 차이점들을 제외하면 독일어로 된 문법 설명과 문법용어들은 서구식, 특히 라틴어식 용어전통에 따른 독일 언어학적 경향을 따라 독일인을 대상으로 교수하기에 아주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의 구성은 대략 다음의 목차 1과에서 12과까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시작 부분에서 4과까지 한글과 한글의 자모, 한글 체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발음규칙등도 독일어와 비교하여 독일어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책에는 남쪽식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Inhalt	(내용)
Vorwort = V	
Einleitung = XIX	
Abkürzungen und Symbole = XXIV	(약어 및 기호)
1. Lektion (제1과)	
1.1. Schrift und Aussprache = 1	(문자와 발음)
1.1.0. Allgemeines = 1	
1.1.1. Grundbuchstaben = 4	(기본자모)
1.1.1.1. Vokalbuchstaben = 4	(모음)
1.1.1.2. Konsonantbuchstaben = 4	(자음)
1.1.2. Silbenstruktur = 4	(음절구조)
1.1.2.1. Graphische Silbenstruktur = 4	(서기소의 음절구조)
1.1.2.2. Phonetische Silbenstruktur = 6	(음성적 음절구조)

1.1.3. Aussprache = 7	(발음)
1.1.3.1. Vokale = 7	(모음)
1.1.3.2. Konsonanten = 8	(자음)
1.2. Mündliche Sprachpraxis = 15	(발화 연습)
1.2.1. Satzmuster = 15	(문형들)
1.2.2. Grammatik und Sprachregeln = 15	(문법과 규칙)
1.2.3. Sätze 16	(문장들)
2. Lektion (제 2과)	
2.1. Schrift und Aussprache = 20	(문자와 발음)
2.1.1. Abgeleitete Buchstaben = 20	(파생자모)
2.1.1.1. Vokal- und Diphthongbuchstaben = 20	(모음과 복모음)
2.1.1.2. Konsonantbuchstaben = 20	(자음)
2.1.2. Silbenstruktur = 20	(음절구조)
2.1.3. Aussprache = 21	(발음)
2.1.3.1. Vokale = 21	(모음)
2.1.3.2. Diphthonge = 21	(복모음)
2.1.3.3. Konsonanten = 22	(자음)
2.1.4. Das koreanische Alphabet in Übersichten = 24	(전반적인 한국어 문자체계)
2.2. Mündliche Sprachpraxis = 27	(발화연습)
2.2.1. Satzmuster = 27	(문형들)
2.2.2. Grammatik und Sprachregeln = 27	(문법과 언어규칙)
2.2.3. Sätze = 29	(문장예시)
3. Lektion	
3.1. Schrift und Aussprache = 34	
3.1.1. Konsonantenassimilation = 34	(자음동화)

- 3.1.2. Emphatisierung von Konsonanten (1) = 37
- 3.1.3. Palatalisierung von ㄷ and ㅌ = 39 (ㄷ과 ㅌ의 구개음화)
- 3.2 Mündliche Sprachpraxis = 40
 - 3.2.1. Satzmuster = 40
 - 3.2.2. Grammatik und Sprachregeln = 41
 - 3.2.3. Sätze = 41
 - 3.2.4. Liste von Verwandtschaftsbezeichnungen = 46 (친족관계명칭표)

- 4. Lektion
 - 4.1. Schrift und Aussprache = 47
 - 4.1.1. Doppelkonsonanten = 47
 - 4.1.2. Getrennt- und Zusammenschreibung = 51
 - 4.1.3. Emphatisierung von Konsonanten (2): Aussprachebesonderheiten bei Komposita und Wortgruppen = 56
 - 4.1.4. Weitere Aussprachebesonderheiten bei Komposita und Wortgruppen = 58
 - 4.2. Mündliche Sprachpraxis = 60
 - 4.2.1. Satzmuster = 60
 - 4.2.2. Grammatik und Sprachregeln = 61
 - 4.2.3. Sätze = 62
 - 4.2.4. Verzeichnis der Zahlwörter und Monatsnamen = 66

- 5. Lektion
 - Text I: 학생들 - Studenten = 68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68
 - 5.0. Allgemeines = 68
 - 5.1. Prädikat des Hauptsatzes, Satzschlußendungen der Verben = 72
 - 5.2. Wörterbuchform der Verben = 73
 - 5.3. Themaendung -은 / -는 (1) = 74

- 5.4. Genitiv: -의 = 75
- 5.5. Akkusativ: -을 /를 (1) = 75
- 5.6. Dativ: -에게 (1) = 76
- 5.7. Lokativ: -에서 = 77
- 5.8. Plural = 78
- 5.9. Honorativsuffix -님- = 79
- 5.10. Personalpronomina = 80
- Text II: 우리가족 - Unsere Familie = 81
- Übungen = 83

6. Lektion

- Text I: 오후 - Nachmittags = 86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86
- 6.1. Bildung des Präteritalstamms der Verben (1) = 86
- 6.2. Dativ: -에 (1) = 90
- 6.3. Reihung von Nomina = 92
- 6.4. Ausdruck der Zeitdauer = 93
- 6.5. Postpositionen = 94
- 6.6. Nominalsuffix -째 = 95
- Text II: 나의 하루생활 - Mein Tagesablauf = 96
- Übungen = 97

7. Lektion

- Text I: 우리교실 - Unser Unterrichtsraum = 99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99
- 7.1. Soziativ: -와 /-과 (1) = 99
- 7.2. Instrumental: -로 /-으로 (1) = 101
- 7.3. Dativ: -에 (2) = 101

- 7.4. Subjektskasus (1): -이/-가 = 102
- 7.5. Akkusativ (2): Bildung von Lokalbestimmungen = 103
- 7.6. Existentialverben = 104
- 7.7. Qualitative Verben = 105
- 7.8. Lokalpronomina = 105
- Text II: 견학 - Exkursion = 106
- Übungen = 108

8. Lektion

- Text I: 사전문제 - Wörterbuchprobleme = 111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112
- 8.1. Ablativ: -에게서/-에서 = 112
- 8.2. Dativ: -에게 (2): Possessivkonstruktion = 113
- 8.3. Akkusativ (3): Bildung von Finalbestimmungen = 114
- 8.4. Soziativ (2) = 114
- 8.5. Modifizierende Endung -도 (1) = 115
- 8.6. Bildung des Präteritalstamms der Verben (2) = 117
- 8.7. Negationsadverb 안 = 119
- 8.8. Honorativverben = 120
- Text II: 마중 - Begrüßung = 120
- Übungen = 122

9. Lektion

- Text I: 자유시간 - Freizeit = 126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127
- 9.1. Ablativ: -부터 (1) = 127
- 9.2. Terminativ: -까지 (1) = 127
- 9.3. Konjunkionalendung -고 (1) = 128

- 9.4. Attributivendung -ㄴ (1) = 130
- 9.5. Vokalisierte Verbstämme = 131
- 9.6. Formbildungstypen der Verben = 133
- 9.7. Modifizierende Endung -만 = 135
- 9.8. Themaendung -은 /-는 (2), Gebrauch modifizierender Endungen
nach Kasusformen = 136
- 9.9. Nominalsuffix -쯤 = 138
- 9.10. Satzschlußendung -아요 / -어요 / -여요 = 138
- Text II: 거리구경 - Stadtbummel = 140
- Übungen = 141

10. Lektion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145
- 10.1. Themaendung -은 /-는 (3) = 145
- 10.2. Instrumental (2) = 146
- 10.3. Zitatschlußkennzeichnung: -라고 (1) = 147
- Text: 봄철 - Frühling = 148
- Übungen = 149

11. Lektion

- Text I: 거리에서 - Auf der Straße = 153
- Grammatik und Sprachregeln = 154
- 11.1. Negation (1) = 154
- 11.2. Aufforderungsmodi (1) = 158
- 11.3. Ablativ: -부터 (2) = 160
- 11.4. Terminativ: -까지 (2) = 161
- 11.5. Instrumental (3) = 161
- 11.6. Adverbialform der qualitativen Verben = 162

11.7. Adverbialform der Adjektivwörter auf -적 = 163

11.8. Konjunkionalendung -고 (2) = 164

11.9. Pluralsuffix -네 = 165

11.10. Das Verb 되다 werden = 166

Text II: 방문 - Besuch = 167

Übungen = 169

12. Lektion

Text I: 약속 - Verabredung = 174

Grammatik und Sprachregeln = 175

12.1. Aufforderungsmodi (2) = 175

12.2. Satzschlußendungen - 오 /-소 = 177

12.3. Ausdruck des Futurs (1) = 177

12.4. Soziativ (3) = 179

12.5. Lokativ/Ablativ: -에서 (2) = 180

12.6. Themaendung -은 /는 (4) = 191

12.7. Hilfsnomen -대로 = 182

12.8. Zitatschlußkennzeichnung: -라고 (2) = 183

Text II: 소풍 - Ausflug = 183

Übungen = 185

전형적인 한 과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어로 된 회화텍스트나 간단한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이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법사항과 문법규칙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한국어 예문과 함께 소개된다. 이 책의 경우 3개로 된 카세트 테이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모든 한국어예문에는 독일어 해석이 붙어 있고, 독일 대학에서 한 주에 한 과씩 진도를 나가면 1년 정도면 이 책 한 권을 마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8과의 문법사항들을 보면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 8.1. Ablativ: -에게서/-에서 = 112
- 8.2. Dativ: 에게 (2): Possessivkonstruktion = 113
- 8.3. Akkusativ (3): Bildung von Finalbestimmungen = 114
- 8.4. Soziativ (2) = 114
- 8.5. Modifizierende Endung -도 (1) = 115
- 8.6. Bildung des Präteritalstamms der Verben (2) = 117
- 8.7. Negationsadverb 안 = 119
- 8.8. Honorativverben = 120

‘에게서/에서’는 Ablativ(탈격)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에게’는 Dativ, ‘와/과 함께/같이’는 Soziativ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전통은 1999년에 하와이 대학 손호민 교수의 Cambridge 대학간행 <The Korean Language>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어가 SOV언어로서 형태론상 워낙 복잡한 언어이다 보니 접미사나 격조사, 동사의 활용어미, 문법적 어미들의 설명, 즉 형태론/통사론에 많은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문법 소인 경우에도 쉬운 문법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법으로 과를 달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3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독일인들에게 언어 유형론상으로도 어렵게 다가오는 한국어의 담화중심적인 특질들 중 ‘은/는’의 쓰임을 들 수 있겠는데 제5과에서는 주어로 쓰인 ‘-은/-는(1)’이, 9과에서는 ‘은/는(2)’로 표시가 되어 주어로 쓰이지 않고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거나 대조의 의미, 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다른 격을 표시하는 조사 다음에 쓰이는 경우(예: -부터는)가 풍부한 예문과 함께 설명되고 있다. 제10과에서는 ‘은/는(3)’으로서 표시되어 서술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장성분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들이(예: 우리 *아빠*는 건강이 좋습니다; *조선말*은 독일 사람에게 문법이 힘들어요) 다루어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더 나아가 제13과에서 ‘은/는(4)’의 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속절의 주어인 경우 ‘이/가’가 쓰이고 주절의 주어인 경우 ‘은/는’이 사용되는 경우이다(예: 우리가 결상에 앉은 다음 선생님은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에서 동일한 어미나 형태소가 나타나면 항상 이전에 나왔거나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쓰임에 대한 교차언급(cross-reference)이나 참고사항이 잘 표시되어 독자들을 잘 유도하며 고려하고 있다. 문법 사항과 관련한 한국어 예문들은 모두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각 과의 문법 설명이 끝나면 주제를 달리하는 추가적인 지문이나 텍스트 내지 이야기나 나오며 연습문제와 번역과제가 주어진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특히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번역이나 통역이 오랫동안 중시되었던 전통을 이 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교재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가한 대표적인 독일어로 된 문법 교재이기에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최근의 한국어 교재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Lewin/김종대’ 공저인 한국어 문법 교재보다는 확실히 질적이나 양적으로 진전된 한국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저자인 Herrmann 교수는 서문에서 이 문법서는 북한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문법서의 동질성을 염두에 두어서 남한말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을 했다고 쓰고 있다. 2000년 7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한국어학회(ICKL) 학술대회에서 필자는 Herrmann 교수에게 이 책을 개정할 의도가 없느냐고 물어 보았었는데 당사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동독출신으로서 의도적으로 남북한 표현들을 섞어서 편찬한 듯하였다.

4.2.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Bruno Lewin/김종대 저

독일 Buske 출판사 간행

이 교재는 독일 보훔(Bochum) 대학의 일본학 정교수였던 유태인학자

Bruno Lewin 교수와 하이델베르크에서 60년대 독문학학위를 마치고 Bochum 대학에서 60년대 말 전임강사로 한국어를 가르쳤던 김종대 교수(단국대 독문과 정년퇴임)에 의해 쓰여진 한국어 문법서인데 출판된 지 30년이 넘었다. 지금도 이 교재는 Bochum 대학에서 한국어 문법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보훔대의 한국학은 일본학에서 갈라져 나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레빈교수가 길러낸 독일인 한국학 학자가 현재 함부르크대의 자세(Prof. Dr. Werner Sasse) 교수와 얼마 전 정년퇴임한 튀빙엔 대학의 아이케마이어(Prof. Dr. Dieter Eikemeier) 교수, 그리고 본(Bonn) 대학의 후베 교수(Dr. Albrecht Huwe)이다. 아이케마이어 교수는 본래 AKSE 초대 회장이자 네덜란드 출신인 라이덴대학(Leiden) 프리츠 포스(Prof. Fritz Vos) 교수(1918-2000)에게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보훔의 중국어과에서 조교수로 강의를 하며 일본학과 학과장인 레빈 교수에게서 정교수자격논문을 마쳤다. 이렇게 보면, 독일의 한국학 발전에 레빈 교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레빈 교수와 김종대 교수가 공동 저술한 이 책에서는 주로 독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래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간단한 표현을 하며 이해할 수 있고 한글로 된 간단한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들은 이 책의 한국어 모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 중부지역의 현재어라고 규정하고 있다(Lehrgegenstand ist die Gegenwartssprache Zentralkoreas im Gebiet von Seoul. V.). 책의 편제는 전통적인 서구의 외국어 문법서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음과 한글 자모 소개 부분이 끝나면 동일한 순서로 구성된 22개의 과로 이어지는데 ‘단어목록을 통한 한국어, 한자어소개- 주제에 따른 대화식 텍스트-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사항- 텍스트에 대한 추가설명- 연습문제- 한국어에 관한 지역정보와 문학’의 순서로 매 과가 이루어져 있다. (Vokabeln - Text - Grammatik - Sprach- und Sachkommentare zum Text

- Übungen - Landeskunde und Literatur). 각 과 끝에는 또한 반복 연습문제가 주어져 있다. 문법부분은 매 과마다 새로운 문법 내용을 구성원칙과 쓰임에 따라 3가지에서 5가지씩 다루고 있고 연습문제는 문법형태의 활용, 보충연습, 주어진 단어를 이용한 질문과 답변 만들기, 혹은 번역의 형식을 띄고 있다. 11과와 22과는 각각 한 학기를 마치는 반복 및 복습의 기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22과가 끝이 나면 주제별(Sachgruppen)로 해당되는 과의 주제에 맞는 한국어 보충단어들이 상응하는 독일어단어와 함께 제공되며 그 다음 장에는 로마자 알파벳 순서로 한국어 단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로 색인이 붙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각 과의 연습문제에 대한 해답이 로마자표기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한국어 화계(speech level; Sprechstufe)와 관련 5번째 단계로 ‘합쇼체’를 대화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자들은 교양 있는 지위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 합쇼체가 가장 적합하고 많이 쓰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8과에서 해라체가 나오고 17과에서는 하오체가 그리고 한국어의 가장 낮은 화계에 속하는 ‘반말’은 19과에서야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편제 상 언어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을 위한 대학교 차원에서의 강의를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고, 매주 4시간에서 6시간씩 수업을 할 경우 25주 정도 걸려 책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교재의 첫 페이지 시작에서부터 한국어의 ‘의’나 ‘외’ 소리에 대한 발음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한국어 단어의 초성이나 음절의 시작에서 복모음처럼 발음을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또한 한국어의 복모음은 독일어에 존재하는 진정한 복모음이 아니라 ‘구개음이나 양순음의 반모음과 기본 모음과의 결합에 의한 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독학을 하는 학습자나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책의 경우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서 맥퀸-라이샤우어 표기법(McCune-Reischauer-Umschrift)을 대체

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한국어 발음에 이 표기법으로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첫 과에서 15과까지 한글표기 옆에 로마자표기도 첨부 하였다. 이 책은 현재 Bochum에 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의 주립언어연구소(Landesspracheninstitut)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Bochum 대학 소속인 Dorothea Hoppman를 중심으로 2005/06년 겨울에 새로 쓴 개정판이 나올 것이라 한다. 새로 나오는 개정판도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1년간의 독일대학 한국어 과정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4.3. Lehrbuch für Koreanisch als Fremdsprache(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에서 출간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임호빈 외)을 기반으로 한 독일어로 된 한국어 문법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Bonn 대학 한국학과에서 Albrecht Huwe 교수를 중심으로 필자 등 여러 명이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고 국제교류재단의 출판지원 약속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다. 출판계약이 된 독일 출판사는 Stauffenburg 출판사이다. 한국어 문법 사항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어로 된 원본을 따르고 있으나 문법 설명이나 예제에서는 독일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많이 변경하고 보충하였다.

4.4. Koreanisch für Anfänger, Edition Peperkorn **출판사** 2005

그 외에도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Beckers-Kim(Regensburg 대학)이 저술한 “Koreanisch für Anfänger”(3. Auflage)이 있다. 이 교재는 앞서 언급된 저술들과 비교하여 독일어로 된 학문적인 설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 독일인들이 느끼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음성, 음운론상의 중요한 언어학적 차이점들이나 문법적 사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데 약점이 있다. 초판에는 한국어 발음규칙에 관한 문제점 등이 많이 지적 되곤 했다. 한글 자체가 외국인이라도 배우기 쉽기 때문에 실제 문자체계 자체는 단시간 안에 습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Herrmann(1994: 1f.)도 지적하듯이 문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자음동화 규칙 등 한국어의 발음규칙은 복잡하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발음하거나 소리 내어 읽는데 쉽게 자신감을 표현하지는 못한다(Kim 2001: 81도 참조). Beckers-Kim의 이 저술은 현재 3판 개정판이 나와 있고 처음부터 한글을 배워야만 진도가 나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이름이나 표현들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오디오 CD가 2개 포함되어 있는데 CD를 활용하면 한국어를 연습하는데 적합하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독일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독일의 한국어학이나 한국학 기관들을 간략히 소개했고 독일어와 비교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2장에서 한국어/독일어의 병렬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어중심적인 언어와 주제중심적인 언어의 차이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차이점들에 기인한 문법 오류가 독일학생들의 작문 분석에도 나타남을 지적했다. 주어나 주제중심적인 언어들 간의 차이뿐 아니라 독일학생들은 한국어의 문법적 제약에 속하는 동사의 위치성 때문에 정보처리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항도 지적하였고 동시에 한국어 후치사의 습득에 독일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작문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필자는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언어적인 문제

외에도 독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였고 이런 교재들도 주로 설명하는 문법요점들이 한국어의 형태/통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재들의 경우 대부분 문법 설명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저술시점이 이미 오래 되어 내용을 새로이 보충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이 개정되는 문법 교재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독일어에 기반을 둔 DVD같은 디지털 매체의 개발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독일어권 고등교육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국어와 독일어의 문법적 차이, 독일어로 된 한국어 문법 교재

참고문헌

- 최종고(1983), 『한독교습사』, 서울: 흥성사.
- Beckers-Kim Y. J.(2005), *Koreanisch für Anfänger*, Edition Peperkom.
- Herrmann, W.(1994), *Lehrbuch der modernen koreanischen Sprache*, Hamburg: Helmut Buske Verlag.
- Kim, Y. J.(2001), *Koreanisch als Fremdsprache: Probleme des Sprachunterrichts für die deutschkoreanischen Studenten der zweiten Generation und für deutsche Studenten*. Diplomarbeit, Universität Bonn.
- Lewin, Bruno/Kim, J. D.(1997),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Hamburg: Helmut Buske Verlag.
- Seong, Sang Hwan(2001), "Transitivity Parameter and Prominence Typology: a

* 본 논문은 2005. 12. 4 투고되었으며, 2005. 12. 7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crosslinguistic approach”, In *Applied Cognitive Linguistics I*, edited by M. Pütz, S. Niemeier & R. Dirven,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19*. 131-165. Berlin & New York: de Gruyter.

■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Grammar Teaching at
Tertiary Level in the German Speaking Countries

Seong, Sang Hwa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status of Korean grammar teaching at the tertiary level in the German speaking countries. First, we provide a short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in Germany. Second, we briefly analyse the grammatic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German with special reference to morphosyntax. In the third section, we focus on the grammatical and typological differences that include 'speech level-oriented language' versus 'grammatical person-oriented language', grammar or subject-oriented language versus discourse-oriented language, postposition acquisition and sentence processing difficulties. In the fourth section, we critically evaluate four representative Korean textbooks written in German with focus on the grammar contents.

[Key Word] Korean grammar teaching at tertiary level in the German speaking countries,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German, college Korean textbook written in Germa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